

혁신도시 하반기 공채...지역 인재 채용 늘려야

한전 등 채용규모 확대에도

지역 인재 홀대 목소리

농어촌공사, 지역 할당제 도입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일제히 공채에 돌입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대졸수준 신입사원 201명을 채용한다. 올해 이미 1200여명을 채용한 한전은 안정적 전력수급체계 유지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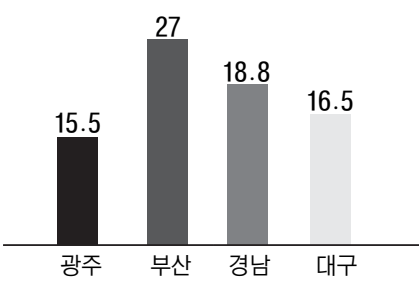
한전은 특히 사무직 55명을 뽑기로 해 주목된다. 사무직과 함께 송배전 121명, 통신 20명, IT 5명을 채용한다. 한전은 지난달 말까지 원서접수를 받아 이달 5일 필기시험을 했으며, 이후 면접시험을 통해

■올 하반기 채용 계획	
한전	201명 (사무직 55·송배전 121·통신 20·IT 5 등)
한전 KPS	50~60명
농어촌공사	217명 (행정 61·토목 78·기계 25·전기 24·지질 12·건축 7·전산 6·환경 4 등)
aT	30명 내외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공채에서 지방인재, 이전지역인재 등의 채용을 통해 열린고용에 적

■혁신도시 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단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극 앞장서겠다고 밝혀 얼마만큼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도 올해 안에 신입사원 50~6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2배가량 늘려 올 하반기에 217명을 선발한다.

농어촌공사 채용 분야는 행정(61명), 토목(78명), 기계(25명), 전기(24명), 지질(12

명), 건축(7명), 전산(6명), 환경(4명) 등이다. 농어촌공사는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특히 이번 전체 채용인원 중 105명을 '농어촌전형'을 통해 뽑기로 했다. 농어업인 자녀와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대상이다.

또 이전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해 광주·전남지역 학교 출신 인재가 해당 분야 모집인원의 10%에 미달될 경우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도 최근 채용 공고를 내고 3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를 홀대하고 있다. 빛가람도시 공공기관의 채용비율은 15.5%로, 부산 27%, 경남 18.8%, 대구 16.5%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내 게임시장, 모바일 뜨고 온라인 지고

한콘진, 2016 게임백서 발간

■국내 게임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달러, 콘텐츠진흥원 제공)

아케이드 게임 활성화 전망

2015년 한국 게임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 무대행 강만석)은 2015년 국내 게임 산업 통계 및 2016년 상반기 국내외 게임 산업 동향을 다룬 '2016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지난 7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대비 7.5% 성장한 것으로, 올해는 11조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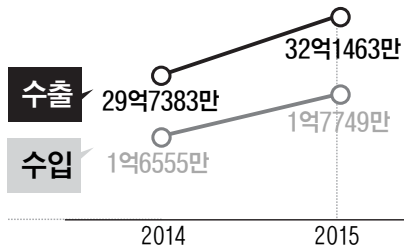
모바일게임 시장은 확대된 반면 온라인게임 시장은 축소됐다. 모바일게임은 19.6%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 중에서 32.5%를 차지했다. 반면 온라인게임은 2014년 대비 4.7% 감소한 49.2%를 기록하며 최초로 50% 이하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게임의 성장세로 인해 온라인게임의 비중이 점차 하락세를 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 시장은 약진했다. 2014년 대비 PC방의 성장률은 35.2%, 아케이드 게임장의 성장률은 13.0%로 소규모 업체는 감소하고 전문 프랜차이즈의 등장으로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장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제품의 출시로 인해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수입액은 모두 늘었다. 지난해 게임 수출은 32억 1463만 달러로 2014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게임 수입은



2014년 대비 7.2% 늘어나 1억 7749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화권(32.9%), 일본(21.5%), 북미(17.2%), 동남아(11.2%), 유럽(10.8%)순으로, 중화권과 일본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1.2위를 유지했다. 북미와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은 2014년 대비 각각 10.3% 포인트와 6.8% 포인트 증가했다.

세계시장 통계에서 제외되는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 등 유통·소비업을 제외한 국내 게임시장의 매출액은 9조 4245억원(80억 900만 달러)으로 세계 게임시장(1307억 5100만 달러)에서 6.1%를 차지했다.

2015년 국내 게임 산업 총사자 수는 총 8만 388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게임 제작·배급업체는 885개, 게임 유통·소비업체는 PC방 1만 2459개, 아케이드 게임장 500개로 조사됐다.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게임 이용자 현황과 게임문화·게임기술·법제도 등 게임 산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대청서점과 온라인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전KPS, 중소기업 30곳과 공정거래·기술협력 다짐

한전KPS(사장 최희근)는 최근 중소기업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추진을 통한 상호 경쟁력 제고를 약속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한전KPS는 지난 9일 나주 빛가람동 본사 5층 창조홀에서 한전KPS 관계자들과 강우기업㈜ 등 2016년도 경상공사 수행업체 30개사 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한전KPS-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 질서유지 및 동반성장을 위한 관련법규 준수 ▲물품·공사·용역 등 거래시 표준계약서 사용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문화확립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적극 노력 ▲협력사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재무 건전화 등 경쟁력 향상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정령계약 조건 준수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한전KPS는 협력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등 판로 지원, 정비공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기술교육 시행 등 인력양성 지원, 네트워킹, 공공구매론, 협력기업대출 등 금

융 지원,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과공유제 시행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사 운영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T, 10일간 '싱싱장터 앱' 무료 시식 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aT)는 11~20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싱싱장터 앱을 다운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시식 이벤트를 개최한다.

싱싱장터(www.esingsing.com)는 지자체 및 농가가 운영하는 326개 소품종의

4만4000여 농산물을 간편하게 비교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 직거래장터 위치 찾기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영리 사이트로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직거래장터를 찾는 오프라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앱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 메시지를 자동 전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

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반경 50~7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메시지 전송, 모바일 결제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블루투스 기반의 스마트폰 근거리통신 기술이다.

무료 시식 이벤트에 참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국 11개의 직거래 장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싱싱장터 앱을 미리 다운받고, 직거래장터에 설치된 비콘을 지날 때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수신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모

하면 된다.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반경 50m 무농약 고구마 팔래이(70g×5봉) 200세트를 증정한다.

두 번째는 장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 간단한 온라인 게임 후 응모하는 방법이다. 싱싱장터 앱을 다운 받은 고객이 매일 앱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를 받은 후 온라인 무료 시식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간단한 게임에 참여하면 응모 할 수 있다. 10일간 총 200명에게 경품을 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콘텐츠 인재들 현역 멘토와 일자리 상단

22일 서울 cel벤처단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2016 콘텐츠 미니 잡페어'를 오는 22일 서울 중구 cel벤처단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기업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어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업계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관련 직무에 대해 취업준비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다.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아이코닉스 이수진 팀장, '로보가 폴라'의 제작자인 ㈜로이비주얼 김선구 이사, '썸비담'의 제작사인 ㈜에니작 이문용 이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잡매칭 프로그램에는 ▲㈜로이비주얼 ▲㈜스튜디오 미르 ▲㈜아이코닉스 ▲㈜오콘 ▲㈜바이브릿지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제작 및 기획·디자인·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의 인재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은 오는 18일까지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홈페이지(edu.kocca.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취·창업지원실 02-2161-0003~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획, 취재, 제작기간 1년 6개월, 우간다, 레바논 해외 로케이션

우간다와 레바논에서 내전과 기아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현지민들에게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들의 감동실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11월 17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천국이 찾아옵니다

최수종 & 최강희 내레이션 기획/제작, CBS 감독/프로듀서, 김동민 이주훈 출연, 김영하 김은혜 한성교 선교사 제공, 밀알복지재단 배급, CBS 199만다미로

CBS 제작

순종

OBEDIENCE

11월 17일, 전국 CGV 대개봉! | 전체 관람가 |

관람문의 | CBS 시네마 (02-2650-7942)